

[목회자 모임]  
요한복음 - 거듭나지 아니하면(요3:3)

2019. 10. 11. 이현래 목사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한다. ‘구속’이라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 같지만 뜻이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종교적인 문제로 왔을 것이다. 좋은 일을 서로 같이 상의해서 해보자는 뜻으로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말씀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전부 동문서답이다. ‘거듭난다’고 하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할 때도 쓰고, 또 생활이 바뀌질 때도 사용한다.

성결교회의 4중 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다. 거기서 설명하는 중생도 어떤 행동의 변화, 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중생이라고 한다. 요한 웨슬레 계통의 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예전에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롬3:28)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결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탄 판인데 원래 미국의 <Church of God>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와 있었다. 요한웨슬레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반격을 해서 한 시간 동안 내내 둘이 옥신각신 했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사람이 점진적으로 성결해질 수 있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여야지 더 성결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나 나나 모르는 매 한가지였다.

니고데모가 그런 것을 몰라서 이야기가 길어졌겠는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요3:4)라고 묻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고 말하니까 또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생긴다. 물은 생수, 생명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했는데, 니고데모와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고 하니까

점점 갈수록 애매모호해진다.

‘거듭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확실한 대답이 없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에 대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토레이 신부님이 쓴 책이 있었다. 성령론이 있어서 끝까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더라. 거기서 마지막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고 했다. 모두 이런 것을 신비로운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또 행동의 어떤 변화, 생활의 어떤 변화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헛갈리는 것 같다.

니고데모가 간 후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고 말씀했다.

이것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이 같은 말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했다고 볼 수 있다.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 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다고 한다. 모두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산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사는가? 이것이 알 수 없는 말이다. 성경을 보다보니깐 이것이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만 전혀 출처가 다른데서 온 말이고, 다른 세상에서 한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세상에서 한 말이 아니다.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하면 당연히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겠지 하면서도 사람들은 창조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론과 다른 문제이다.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로 받아들여진 날, 그 말이 효과가 있지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

미국에서는 지금 교육기관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창조론을 알아보았자 나와 큰 관계가 없고, 진화론을 알아보았자 큰 관계가 없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릴 때, 그때 특이한 말로 알아지지 그러기 전에는 비슷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혼돈되기 대단히 쉬울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상관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상징물이 되기도 하고, 표시물이 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나한테 무엇이 일어났는가? 다 알겠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지금까지 전해진 그 십자가 사건의 효과를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건밖에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이는 날이 오면 이것이 다른 말이고, 다른 사건으로 알아진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아무리 우겨보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도 그렇다. 불 뱀에 물렸는데 구리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고 하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해석들을 할 것이다. 모르겠지만 요한이 이것을 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오랜 후에 쓴 말인데, 자기 안에서 이것이 하늘의 말로 충분히 소화됐기 때문에 한 말이다.

자기가 본 어떤 사건과 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쳐다봤는데 살았다. 쳐다보니까 영생이 되었다는 말이다. 십자가에 달린 분을 쳐다보니까 뱀의 독이 빠져나갔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그 구리 뱀은 구리가 심판이니까 심판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독이 없는 뱀이 오니까 독이 있는 뱀의 독이 나갔다는 말이다.

이 독은 무엇인가? 마귀가 사람에게 먹여놓은 선악과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속여 놓은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기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전에는 누구도 내가 마귀에서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참 미려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고 했는데 알고 보면 참 미려한 짓이다. 멀쩡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 마귀에서 속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 마귀에서 속았다고 하면 내가 언제 속았다는 말이냐고 할 것이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이 경험이 없이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말이다. 전혀 다른 말이다. 그렇게 흔해빠진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을 신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 할 것도 없다. 신비로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신비로 다 된다면 사역자가 필요 없다. 성령을 받는 문제나 거듭나는 문제나 구속의 문제나 이런 것이 다 신비로 되는 일 같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 올 때는 신비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눠 먹일 때는 신비로는 나눠 먹일 수가 없다. 보편적인 양식이 되어야만 먹을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먹었어야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 십자가를 봐도 그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이 사람들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 버렸다.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 갖다 먹었으니 또 갖다 먹을 것이 있겠는가? 나 같이 믿음도 없고 까다로운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그 못 뛰어내리는 것만 남았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 버렸다. 좋은 것은 다 가져가 버렸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이 되었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되고 서구 문명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너무 허망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문명을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를 쳐다보면 산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고 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생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나는 정말 팔자가 편 사람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은 도저히 안 든다. 왜냐하면 구속의 피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뛰어내리지 못한 것만 나에게 남아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좋아하게 하기도 하게 되었다. 그분을 잘 쳐다보면 우리의 영생이 거기 있고, 구속이 거기 있다. 다른 데서 나는 찾지를 못하겠다. 아무리 해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또 그분이 사는 삶을 따라서 해보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급수가 다르면 따라 살기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좌우간 그분과 결판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은 늘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 결판이 나와야 한다. 그분이 내 생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결판이 나지 않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다.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굳이 예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몰라도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신자 생활을 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도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집사님 세분이 내 위에 있었다. 전도사님이 이러저러 하다고 불평을 하면서 내 보내야 된다고 하였다. 나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이분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 집에서 쌀 갖다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도 아주 훌륭한 신자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막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느냐고 막았다. 예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좋은 신자 노릇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만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살 수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보니까 ‘거듭’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도 있고,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근원’이라는 말도 있다. 근원으로부터 난다고 하니까 결국 구속과 같은 말이다. 근원으로부터 난다. 결국 성경 말씀은 아예 근원부터 틀렸다는 말이다. 어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낫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요즘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도저히 말이 안 들어간다. 해방 전후로 해서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다. 우리가 신문기자는 아니어도 그때 당시 신문도 보고 방송도 듣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 얼마나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완전히 역사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전쟁도 겪어 보았고, 5.16도 겪어 보았고 다 해보았다. 안 해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일체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근본부터 안 된다. 근원자체가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해봐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도 근원부터 틀린 것이다. 근본부터 틀린 것이니까 우리가 밑에 와서 좀 고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근본을 안 고치면 복음이 될 수 없다. 다 자기들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린다. 서로 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대로 해석한 것인지 누가 그것을 판단하겠는가?

이것이 분명히 다른 데서 온 말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그런 마음이 든다. 서로 세계가 다르니까 세계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작이 다른 것을 다음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

내가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읽어봤는데 처음 자체가 틀리다. 처음이 틀리다. 뒤가 틀린 것이 아니고 처음이 다르다. 논리적인 것으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다. 기독교의 어떤 교리보다 아주 논리적이다. 그런데 근본이 다르다. 사람 문제도 근본에 문제가 있지 밑에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근본만 바뀌면 다 바뀌지는데, 근본이 안 바뀌지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진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는 말씀이나 구속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가질 수 없다. 다

같은 말이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근본이 잘못됐다. 위치가 이탈됐다는 말은 아예 근본이 잘못됐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위치가 제 위치로 돌아오기 전에는 안 된다. 이 제 위치가 예수 안에 있는 위치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 위치다. 왜 하필 예수냐고 말을 하니깐 이것이 성경대로 한 말이다. 이것이 다른 데는 없는 말이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분의 위치가 바로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위치다. 그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축복이 따라 있는 것이지 그 위치에 없는 사람에게 따라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요즘 애완견을 격상시켜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그 놈이 어디 가서 쓰레기나 뒤지고 있는 개에게 가서 자기가 사는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는가? 나는 사람과 같이 잔다. 나는 겨울에 옷 입고 살고, 소시지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 쓰레기나 뒤지고 있는 개가 알아듣겠는가? 못 알아듣는다. 같은 개라도 한 놈은 사람 비슷한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고 사는 놈도 있고, 정말 쓰레기나 뒤지고 다니는 그런 개도 있다.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매 한가지이다. 어떤 놈은 금수저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어떤 놈은 쇠수저를 받아서 부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원 문제이다. 영생이나 축복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근원에 달려 있는 문제다.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 뱀을 보냈다. 결국 불평 때문에 불 뱀이 왔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 때문에 마귀가 왔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 세상은 당연히 불평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맞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하다. 교회 다닌다고 될 일도 아니다. 교회 다니면 부름을 받았으니까 택함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거나 들어가는 일은 없다.

교회에서도 보면 표가 난다.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아주 적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위치를 이탈한데서부터 생긴 문제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위치로, 원래 있었던 위치로, 근본된 위치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것을 말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예수를 만나서 다시 갈라지는 것이다. 내 인생이 저기 있구나. 내 고향이 저기구나. 내 위치가 바로 저기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불평이 다 없어진다. 저절로 없어진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 좀 듣기 싫은 말 같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다. 꼭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번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전에도 나는 비슷한 말을 많이 해왔다. 나는 전에 한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때 이런 얘기를 했고,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자리에 오니까 말이 나온다.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오니까, 꼼짝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에 오니까 불평도 나오고 의문도 나오는 것이다. 그전에는 듣고 넘어가면 되었던 모양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이 자리가 마지막 전쟁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간다. 마지막 전쟁이구나. 사탄과 인간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구나. 이 전쟁에 우리가 전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또 인생의 마지막 길에 만일 이것이 없이 갔더라면 나는 뭐하는 사람이었나를 모를 뻔 했다. 그런데 가더라도 이것을 알고 가니까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진다. 이 일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다 했더라면 내가 필요 없는데 아무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선택이 된 것 같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아주 딱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이 다 잘 넘어가는 것을 내가 안 넘어가니까 아주 곤란한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곤란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남들은 다 넘어가는데 나는 왜 못 넘어갔을까? 아주 딱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쓰여질 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쓰일 데가 있다. 그런데 전해보니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 받아들일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이것이 전쟁이다. 다른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더 쉬운 것을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참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라.”(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내가 구속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이처럼 사랑했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이 그렇게도 큰 사랑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예수님 좋다. 좋은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안 된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되지를 않는다. 결국 딱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분을 주신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분을 보여주신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되었겠는가?

옛날에는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찾아지지 않았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찾으려니까 찾지 못했다. 아무리 해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네가 사람이 되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나?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지만 내 양심 속에서 허락이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제는 그 무슨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고 이분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근원을 찾게 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도록 해주었구나. 또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아버지 앞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고, 성경말씀을 볼 때 마다 전부 다 아메니 되고, 또 전에 알던 것보다 명백하게 알아진다. 달밤에 보던 것과 다르게 아주 확실하게 햇빛이 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진다.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진 것 같다.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내가 저분 속에 있다니, 저분 속에 내가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사람들은 그것이 비참한 일이지 뭐가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이 된다. 저분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어떻게 저분 안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이 너무 만족스럽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 불렀던 모든 내용이 다 그 사람 안에 있다.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해 주는지?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분과 내가 떠날 수 없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있는 이런 세계가 어디 있겠는가?

여태까지 예수 믿어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면 얼마나 비극인가. 일본 사람들이 냉정한 사람들이니까 부부간에도 일기를 다 쓴다고 한다. 정년퇴직하고 별 볼일 없으면 이혼을 하는데,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을 내놓고 이혼하자고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언제 이랬지, 언제 이랬지,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당한다고 한다. 그러면 연금은 둘이 나누고, 이제는 별 볼일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극인가. 젊었을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일기장 내놓고 이혼하자는데 뭐라 하겠는가.

내가 평생 예수 믿어서 예수 전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면 뭐가 되겠는가?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이다. 비록 그것이 비참하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왜냐하면 원래 그분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나와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니까 초가삼간이면 어떻고 병신이면 어떤가?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다.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으면 어떤가? 키가 작다고 안 되겠는가? 키가 크다고 안 되겠는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이 그 사람을 좋다하거나 나쁘다하거나 상관이 없다. 나한테 좋으면 된다.

나와 그가 함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 우리가 평생 그것을 소원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다. 언제 함께 죽었는지를 언제 함께 다시 살아나는지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은 당연하다.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살 때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로 생각이 안 된다.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삼위일체에 반대된 다거나 결함이 생긴다거나 염려가 생겼는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이 신이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하나? 신이라고 나와 같이 사는가? 신이 아니라도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하다.

요한1서 마지막에 있는 대로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일5:20,21)고 했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다. 신이고 뭐고 다 우상이라는 것이다. 참 하나님은 예수 밖에 없다. 사람이면 어떻고, 사람 아니면 어떤가?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5:20)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다. 이보다 더 완전한 삼위일체론이 있겠는가? 양태론도 이것이고, 삼위일체론도 이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이것을 객관적인 교리로 만들어 증명하려고 하니 가능하겠는가? 안 된다.

우리 체험 안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영생이고, 모든 우상에서 모든 헛것에서 멀리 할 수 있다. 불교 말로 하면 이것이 완전 해탈이다. 불교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해탈이 우상에서 떠나려고 해탈한다고 하는 것이다. 헛것, 실체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평생 도를 닦고 앉았는데 제대로 벗어나지겠는가?

자기가 어떻게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겠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한 말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창3:9)는 이 말은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무엇을 하느냐는 말은 많지만 어디 있느냐는 말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다. 누구를 만나서 ‘당신 어디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나는 대구 있다는 이 대답 밖에 못한다. 사람으로서는 물어볼 수가 없는 말이

다. 하나님밖에는 물어볼 수가 없는 말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하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했다. 아주 진실한 말이다. 요즘 사람들은 두려워 숨었다고 하지 않는다. 아주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두려워 숨었다고 하겠는가? 그래도 그때는 아담이 아주 순진한 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점점 인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하니 이제는 엉뚱하게 다른 말로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영생이 오겠는가?

오늘 모이신 여러분!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쉬운 것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게만 말한다면 이보다 쉬운 복음이 없다. 그리고 만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다.

우슬초에서부터 백향목까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안에 누구도 참여 못할 사람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것을 전달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 못 뛰어내렸다는 말이 싫으면 거둬낸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거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도 세상에 없는 말이다.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했다고 물과 성령이 어디 있는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말이다.

눈이 있으니 보면 되고, 귀가 있으면 들으면 되고, 손이 있으면 만지면 되는 일이지 이론적으로 세워질 일이 못된다.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제고 숙제다.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이다. 어떻게 하면 만민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겠는가? 노력도 아니다. 다 해놓은 것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진짜로 노력 없다고 아무리 해도 이보다 노력 없는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율법이 들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저렇게 해야 된다가 들어가는데, 이것만은 눈만 뜨면 되는 일이다. 나한테 아무 조건이 없다. 내가 할 일도 아무 일도 없다. 또 능력과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차별이 전혀 없다. 진짜 율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 장황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다 읽고도 알기가 어렵다. 제물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동물제사보다 사람제사를 드린 것이니까 나와 좀 더 가깝다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 어쩌면 믿음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렇고, 믿음으로 이렇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고, 전부 믿음으로 이야기하니 히브리서는 전부 믿음 전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을 이야기하려고 썼다. 새로운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만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려고 히브리서를 썼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좀 안타까우니까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증거가 많이 생기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증인이 많이 생기면 다 알아진다. 그런데 증인이 아직 적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증인이 그분의 군대가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도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한 사람은 없다. 공자님도 그런 말이 없고, 석가모니도 그런 말이 없고, 자기의 증인이 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왜 그렇겠는가? 이것이 말로만 다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서 이것을 살아내고, 영광을 드러낼 때 증인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역자들이 이 영광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무궁무진 있고 한 없이 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대구에 내려올 때 전에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버리고 맨 손으로 왔다. 책을 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런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한 것처럼 막 계속해서 흘러넘친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한 1년 이상을 성경을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보지 않았는데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경이 없어도 전할 말이 너무 많다. 또 성경이 아니어도 전해져야 되지 성경에 이렇다는 것은 교사밖에 안 된다.

성경을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성경의 권위를 주입하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이 없으면 안 되겠는가? 성경이 없어도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이 있기 전에 있던 사건이다. 성경이 있기 전에 사실이다. 만일 우리 안에 이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있다면 성경은 그 사건 후에 생긴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기록된 것이다. 또 죽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 쓴 것이니까 한참 후에 쓴 것이다. 십자군, 십자군 하는데 정말로 십자군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만 되지 말고 나도 함께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